

KOSDAQ |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아이센스 (099190)

CareSens Air 이륙 준비 완료, 구조적 성장의 초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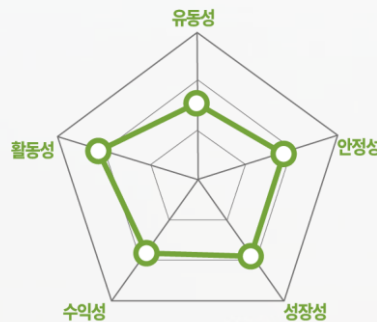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자사 최초 연속혈당측정기(CGM) 'CareSens Air'의 국내 출시와 유럽 보험 등재 진행, 2025년 하반기 글로벌 유통 파트너 공개 예정 등으로 CGM 부문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
- 최신 스마트팩토리인 송도2공장 가동으로 CGM 생산능력도 4배 이상 확충, 자가혈당측정기(BGM) 스트립은 이미 연간 25억 개 이상 생산 가능하여 공급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 강화
-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3,220억 원(+10.7% YoY), 영업이익 82억 원(+209% YoY) 전망. PBR & PSR 1.5배 수준으로 과거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어, 구조적 실적 개선 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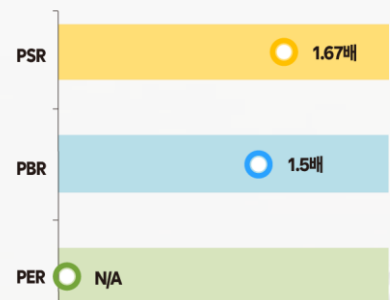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글로벌 체외진단 기업으로 도약 중인 아이센스

동사는 자가혈당측정기(BGM), 연속혈당측정기(CGM), 현장진단(POCT)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표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임. 우수한 제품 기술력과 안정적인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 전 세계 11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 중. BGM 부문에서는 자체 브랜드 및 ODM 채널을 통해 글로벌 4대 메이저 기업과 견줄 수 있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CGM 부문에서는 자사 최초의 연속혈당측정기 제품인 'CareSens Air'를 출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 POCT 부문은 응급 및 중환자 진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 장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병원 내 수요 확대와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성장 중.

CareSens Air 중심의 CGM 본격화, BGM 기반의 수익성 개선도 병행

동사는 CGM 'CareSens Air'를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입증하며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해당 제품은 MARD 8.7% 수준의 정확도, 센서 소형화, 착용 기간 최대 15일 등에서 경쟁사 대비 우수한 사양을 갖추고 있어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 공개 및 유럽 CE 인증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향후 보험 등재 확대 및 글로벌 시장 내 침투 속도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동시에 기존 자가혈당측정기(BGM) 사업 부문은 저가형부터 고급형까지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와 ODM 채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이어가는 중. 특히 신흥국 중심의 수요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 고부가가치 라인업으로의 전환이 병행되며 수익성 개선 여력도 존재함.

CGM 고성장 진입, 구조적 실적 반등 기반 마련

동사는 2025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3,220억 원(+10.6% YoY), 영업이익 82억 원(+209% YoY),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8억 원(흑자전환)을 기록하며 실적 반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특히 CGM 부문은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79% 성장한 31억 원을 기록하며 고성장 궤도에 진입.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보험 등재가 완료되며 긍정적인 초기 시장 반응도 확인되고 있어, 하반기 이후 글로벌 유통망 확장을 통해 외형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 높음. 다만 단기적으로는 CGM 관련 임상 및 사업 초기비용 등으로 인해 수익성 부담이 존재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사업 부문이 기업가치 재평가(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현재 주가는 PBR 1.5배, PSR 1.5배 수준으로 과거 5년 평균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구조적인 실적 개선이 수반될 경우 투자 매력도는 더욱 부각될 것.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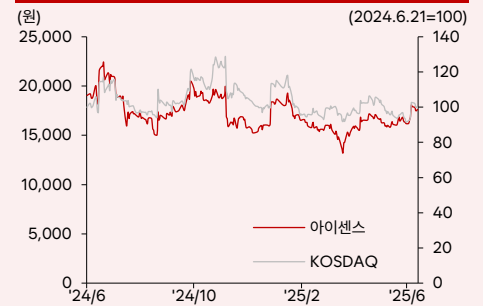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2,329	2,648	2,651	2,911	3,220
YoY(%)	14.3	13.7	0.1	9.8	10.6
영업이익(억원)	348	198	109	27	82
OP 마진(%)	15.0	7.5	4.1	0.9	2.5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55	161	37	-18	38
EPS(원)	927	587	135	-65	139
YoY(%)	-5.2	-36.6	-77.0	적전	흑전
PER(배)	16.3	28.0	212.1	N/A	127.1
PSR(배)	1.8	1.7	3.0	1.4	1.5
EV/EBITDA(배)	9.5	15.7	36.7	27.2	21.4
PBR(배)	1.5	1.6	2.8	1.3	1.5
ROE(%)	10.4	5.8	1.3	-0.6	1.2
배당수익률(%)	1.0	1.1	0.3	0.7	0.6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7/3)	17640원
52주 최고가	22,400원
52주 최저가	13,200원
KOSDAQ (7/3)	793.33p
자본금	138억원
시가총액	4,866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8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9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4억원
외국인지분율	25.91%
주요주주	차근식 외 8인 25.12%
	아크레이 외 1인 11.40%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1.5	12.1	-3.1
상대주가	4.0	-0.2	2.1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기업 개요

BGM 기반의 안정적 사업을 바탕으로 CGM 및 POCT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생산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체외진단 분야의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를 포함한 소형 의료기기의 개발 및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2000년 6월 광운대학교 교수 및 대학원생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2003년 6월에는 0.5 μ l의 소량 혈액으로 5초 내에 측정이 가능한 자기혈당측정기(BGM, Blood Glucose Monitoring) “케어센스”를 출시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안정적 매출 기반을 바탕으로 연속혈당측정기(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병원용 현장진단기기(POCT, Point-of-Care Testing), 동물용 진단기기 등 사업 영역을 차츰 확장해 왔다. 2004년 4월에는 의료기기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CE(Conformité Européenne) 인증과 ISO 13485를 획득했고, 같은 해 5월 경기 기흥공장을 준공하며 “케어센스”의 수출을 개시했다. 이어 2004년 9월에는 미국 AgaMatrix사와 혈당측정용 검사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케어센스 II”와 “케어센스 POP”을 출시하며 제품군을 확대했다.

2007년 이후로는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자가혈당측정기(BGM) 개발에 주력했다. 2011년 12월에는 크기를 줄여 휴대성을 높인 “케어센스 N 미니”를, 2013년 12월에는 NFC 통신 기능을 탑재한 “케어센스 N NFC”를 출시했다. 이와 함께 음성안내 기능을 적용한 “케어센스 N 보이스” 모델도 선보이며 시각장애 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제품을 마련했다. 현재 아이센스는 약 8종의 자가혈당측정기 모델과 5종의 테스트 스트립, 별도의 채혈기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병원용 현장진단(POCT)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해 왔다. 2007년 5월에는 병원용 전해질 분석기 “i-Smart 30”을 출시했으며, 2010년 4월에는 동물용 전해질 분석기 “i-Smart® 30 VET”를 선보였다. 2014년에는 소량의 혈액으로 혈액 내 산소 및 이산화탄소 분압(pO₂, pCO₂), pH, 주요 전해질(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및 적혈구 용적률(Hct)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혈액가스 분석기 “i-Smart 300”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같은 해 카트리지 방식으로 현장용 당화혈색소(HbA1c)를 측정하는 분석기 “A1Care”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이를 통해 아이센스는 자가혈당측정기(BGM) 사업을 넘어 병원 현장진단(POCT) 사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연속혈당측정기(CGM) 분야에서는 2023년 9월 실시간 혈당 데이터와 추이를 제공하는 “케어센스 에어”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이어 2025년 3월에는 BGM을 통한 보정이 필요 없는 무보정 “케어센스 에어”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연속혈당측정기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건설한 송도 제2공장의 첫 출하를 시작했다. 송도2 공장은 연간 200만 대의 연속혈당측정기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어 급증하는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이센스의 연결 매출 중 해외 비중은 약 79.8%(약 2,324억원)에 달한다. 아이센스는 미국, 중국, 독일, 인도, 홍콩, 말레이시아, 칠레 등 7개국에 현지 법인 및 지사를 두고 있으며, AgaMatrix Europe Ltd., AgaMatrix US Headquarters, CoaguSense 등을 포함해 총 10개의 해외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또한 2024년 5월에는 헝가리 의료기기 유통사 77elektronika와의 공급계약을 통해 연속혈당측정기의 해외 첫 수출을 개시했다. 이런 글로벌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이센스는 자가혈당측정기뿐 아니라 병원용 및 동물용 진단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시장까지

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연혁

설립기(2000~2008) 혈당측정기술 내재화와 사업 기반 확립	성장기(2009~2021) FDA 승인 이후 글로벌 시장 확대와 생산 인프라 확장	도약기(2022~) CGM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CGM 업체로 도약
2000 (주)아이센스 설립 (서울 노원구 월계동)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유망 중소기업 선정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 2003 CareSens (0.5 μ L, 5초) 출시 2004 CE, ISO 13485 인증 기흥공장 준공 수출 개시 AgaMatrix와 타이프 공급계약 체결 2004 보건산업기술대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05 INNO-BIZ 지정 2005 노원 본사 준공 2005 CareSens II 출시 2006 CareSens POP 출시 2006 외국투자기업 등록 2007 전해질분석기 iSmart30 출시 2007 원주공장 준공 2007 ODM 자가혈당측정기 일본 후생성 승인 2007 CareSens N 출시 2007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지정 2008 CareSens II, CareSens POP FDA 승인 2008 중국 사무소 설립	2009 Asia-Pacific 올해의 자가혈당측정기 수상 2010 iSmart30 VET 출시 2010 ARKRAY와 테스트 스트립 공급계약 체결 2010 창립 10주년 2010 이천민물 수출의 탑 수상 2010 미국법인 설립 2011 Arkray 제품 출시 2011 유럽 사무소 설립 2011 '소비자의 선택' 수상 2011 CareSens N Mini 출시 2011 세계일류상품 선정 2012 송도공장 준공 2012 뉴질랜드 정부 BGMS 독점 공급계약 체결 2012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2012 삼천민물 수출의 탑 2012 세계일류상품 2년 연속 선정 2013 코스닥 상장 2013 월드클래스 300 선정 2013 Nano-Ditech 인수 2013 홍콩법인 설립 2013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2013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2013 오천민물 수출의 탑 수상 2013 CareSens NNFC 출시 2013 페루 사무소 설립	2022 CGM 개발 성공 및 임상 개시 2022 제1공장, 제3공장 완공 2022 면역진단분석기 iSensa-1100 출시 2022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산업포장 수상 2023 연속혈당측정기 케어센스 에어 출시 2023 AgaMatrix, Inc 인수 2023 CGM 케어센스 에어 제품 인허가 및 판매 개시 2023 송도2공장(제2공장) 준공 2023 CGM 케어센스 에어 유럽 CE 인증 획득 2024 CGM 케어센스 에어 2 제품 기획 및 연구 개발 시작 2024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혈당측정기 부문 13년 연속 수상 2024 제13회 아시아 로하스 산업대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 혈당측정기 부문 12년 연속 수상 2024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2024 CGM 케어센스 에어 미국 출시 예정 2024 CGM 케어센스 에어 국내 급여 적용 예정 2024 미국법인 직접판매채널 구축 2024 CGM 제4공장 신설 착공 2025 연속혈당측정기 케어센스 에어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2025 케어센스 에어 유럽 CE 업그레이드 제품 허가변경 승인 2025 삼성전자와 마이헬스온 프로모션 추진

자료: 아이센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1. 혈당측정기 사업 (2024년 매출 비중: BGM 83%, CGM 2%,)

아이센스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의 BGM 사업과 고성장 기대가 큰 CGM 사업을 양축으로, 국내 1위 혈당측정기 기업에서 글로벌 체외진단 기업으로 도약 중

아이센스는 혈당측정기 사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연속혈당측정기(CGM) 시장 진출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장하고 있다. 2024년 연결 기준 전체 매출의 약 83%를 차지하는 자가혈당측정(BGM) 사업부는 아이센스의 핵심 축으로, 자사 브랜드인 CareSens 시리즈와 A1Care를 비롯해, ODM 파트너용 BGStar, Barozen, OEM 브랜드 Ai-Sensor 등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 다양한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자가혈당측정기(BGM)는 환자가 손끝에서 채혈한 0.5 μ L의 미량 혈액으로 약 5초 만에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기기로서, 즉각적인 결과 표시를 통해 일상적인 자가 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CareSens 시리즈는 출시 초기에는 측정 시간(5초 vs. 평균 15초) 단축과 채혈량(0.5 μ L vs. 평균 2~4 μ L) 최소화로 차별화를 이루며, 소아 및 고령 환자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 사이에서도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BGM 매출 구성의 약 75~80%는 1회용 혈당 스트립(소모품)에서 발생하며, 측정 시마다 교체가 필요한 특성상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해 실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 ARKRAY, AgaMatrix, Embecta 등 글로벌 유통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미터기와 연간 25억개의 스트립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은 60%로 1위를 유지 중이다. 2008년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2010년), 유럽(2011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수출 기반

을 확대해왔고, 현재 혈당측정기 사업 매출의 약 79%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속혈당측정기(CGM) 사업부는 2023년 9월 국내 최초로 출시한 'CareSens Air'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했다. CGM은 피부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혈당 수치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 수차례 손끝 채혈이 필요한 자가혈당측정기(BGM)와 차별화된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혈당 변동성이 큰 환자에게 유용하게 작용하며, 보다 정밀하고 능동적인 혈당 관리를 가능케 한다. 'CareSens Air'는 MARD(Mean Absolute Relative Difference) 8.7% 수준의 측정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Dexcom G6(9.0%), Libre 2(9.3%)와 유사하고, Libre 3(7.9%), Dexcom G7(8.2%)과도 충분히 경쟁 가능한 성능으로 평가된다. MARD는 실제 혈당 대비 측정값의 평균 상대 오차를 의미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아 CGM 성능의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또한, 2025년 3월 'CareSens Air'는 무보정(Calibration-free) CGM 기기로 업그레이드되며 기술적 도약을 이뤄냈다. 기존 제품은 센서 사용 초기 별도의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 값을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입력하는 '보정(calibration)' 절차가 필요했으며, 센서를 교체할 때마다(15일 주기) 환자의 불편함이 지적되어 왔다. 이는 해외 주요 제품과 비교해 'CareSens Air'의 결정적 약점으로 언급되던 부분이었으나,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당 기술적 격차가 해소되며 제품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CGM 사업부의 매출 확대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되었다.

아이센스는 'CareSens Air'를 통해 유럽 CE 인증을 확보하고, 2025년 1분기까지 헝가리, 에스토니아, 영국에서 보험 등재를 완료하여 유럽 3개국에서 보험 급여 등록이 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글로벌 유통 파트너 공개와 함께 유럽 전역으로 본격적인 확장이 기대된다. 2025년 3월에는 후속 모델인 'CareSens Air 2'에 대한 국내 허가 임상에 돌입했으며, 'CareSens Air'의 후속 모델로서 센서 크기를 약 70% 축소하고, 착용 기간을 15일에서 18일로 연장했으며, 초기 안정화 시간도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하였다.

CGM 사업부의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비중은 약 2%에 불과하나, 25년 들어 1분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31억 원을 기록하며 고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송도2공장을 통한 연간 200만 개의 센서 생산능력 확보로 공급 측면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BGMS와 CGM 양측을 통한 아이센스의 중장기 성장 기반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아이센스는 전해질, 혈당, 혈액응고 등 다양한 현장진단기기(POCT)를 기반으로 소모품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고령화 및 재택진료 수요 확대에 대응해 해당 사업 부문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 추진 중

2. 현장진단시스템 사업 (2024년 매출 비중: 15%)

아이센스의 현장진단시스템(POCT, Point-of-Care Testing) 사업부는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비중 약 15%를 차지하는 제2의 주력 부문으로, 자가혈당측정기 사업에 이어 안정적인 실적 기여를 이어가고 있다. 본 사업부는 중앙검사실(Central Lab) 이외의 공간, 즉 병원 외래, 응급실, 중환자실(ICU, Intensive Care Unit), 요양시설, 재택간호 등 환자 및 인접한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임상 환경에서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이센스의 POCT 제품군은 크게 전해질 분석기 'i-SmartCare' 시리즈와 당화혈색소(HbA1c) 분석기 'A1Care' 시리즈, 그리고 2016년 인수한 미국 CoaguSense Inc.의 혈액응고 진단기기 'Coag-Sense' 제품군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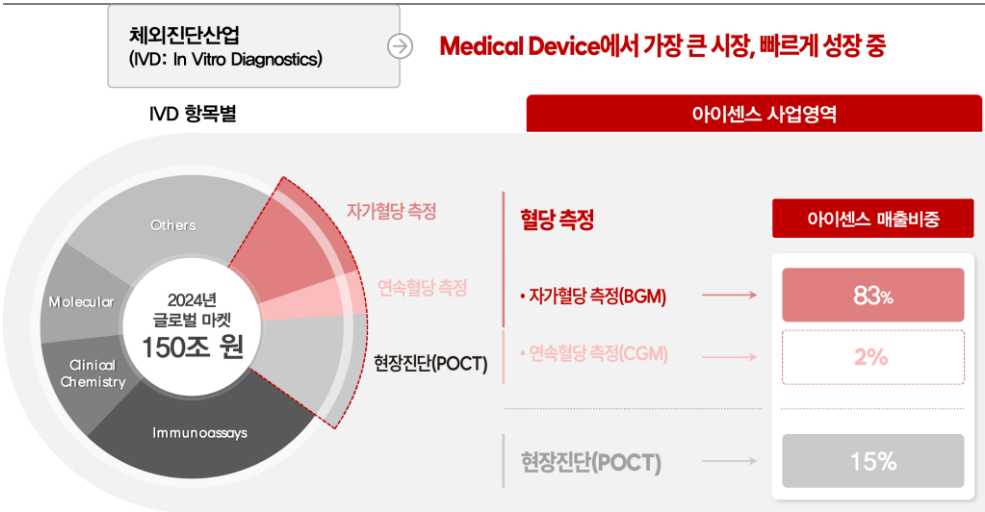
'i-SmartCare'는 pH, pCO₂, pO₂, 나트륨(Na⁺), 칼륨(K⁺), 칼슘(Ca²⁺), 염소(Cl⁻), 헤마토크리트(Hct) 등 총 8개 항목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전혈, 혈청, 혈장, 소변 등 다양한 검체를 기반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은 소형화된 검사 기기에 소모품 일체형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사용 편의성이 뛰어나다. 특히 전극 및 시약 일체형 카트리지를 활용함으로써 반복 구매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이며, 이는 사업의 수익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주력 제품인 'A1Care'는 당뇨 관리와 염증 마커 분석을 위한 소형 면역화학 분석기기로, HbA1c 외에도 ACR(Albumin-to-Creatinine Ratio), GA(GlycoAlbumin), CRP(C-Reactive Protein) 등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측정할 수 있다. 검체 채취 방식에 따라 모세혈, 정맥혈, 소변, 혈청, 혈장 등 다양한 전용 카트리지가 필요하며, 이 또한 반복적인 소모품 수요를 유발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센스는 2016년 미국 CoaguSense Inc.를 인수하며 혈액응고 진단기기 분야로도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해당 사업은 와파린(Warfarin) 등 항응고 치료를 받는 환자의 혈액응고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로,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수치를 모니터링하여 출혈 및 혈전 위험을 조절하는 데 활용된다. CoaguSense의 대표 제품인 'Coag-Sense PT/INR Monitoring System'은 소량의 전혈(10μL)만으로 약 1분 내 측정이 가능하며, 병원 외래 및 가정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별도의 보정(calibration) 없이 사용 가능한 일회용 테스트 스트립을 기반으로 하여 정밀도와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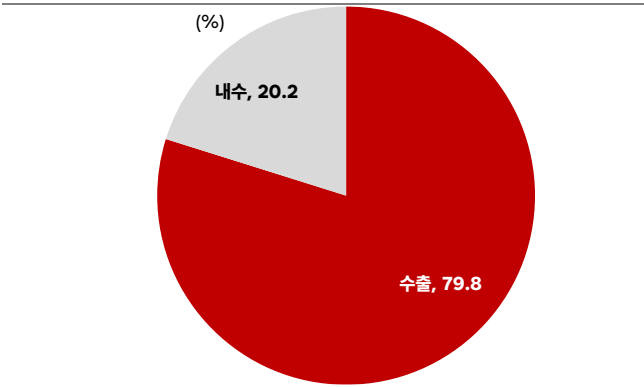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아이센스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재택 의료 확대 등 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으며, 소모품 중심의 수익 모델과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통해 POCT 사업 전반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아이센스 2024년 사업영역 매출 Break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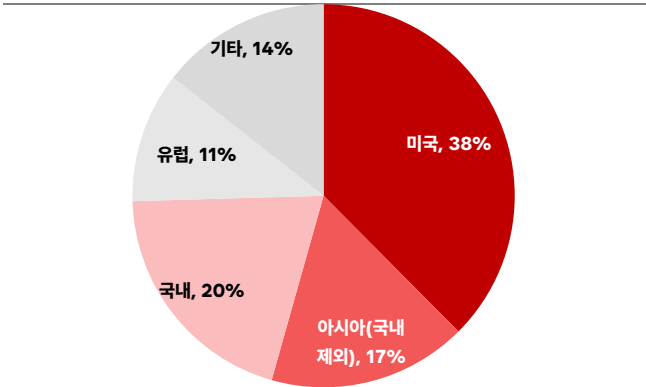
자료: 아이센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내수&수출 매출 비중 (2024)



자료: 아이센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지역별 매출 비중 (2024)



자료: 아이센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혈당 측정기 타입 (BGM vs CGM)

	SMBG(자가혈당 측정기)	CGM(연속혈당 측정기)
측정 방식	손가락 끝에서 피를 내어 혈당값 측정	센서를 피부 아래 피하지방에 위치시켜 연속해서 혈당값 측정
사용 대상	모든 당뇨 환자군	1형 당뇨 환자(Type 1), 중증 2형 당뇨환자(Type 2)
측정 부위	손가락 끝에서 피를 내어 혈당값 측정	팔뚝
측정 샘플	모세혈	세포간액(혈액이 아님)
센서 교체주기	1회 사용	센서 장착 후, 15일
장점	높은 정확도 및 낮은 가격	혈당 추이 분석 용이, 저/고혈당 알림기능, 채혈 통증 없음, 쉬운 데이터 공유
단점	빈번한 측정, 채혈 통증, 저혈당 쇼크	높은 가격, 피부 트러블, SMBG 대비 낮은 정확도



자료: 아이센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아이센스 제품 라인업

혈당 측정기

자가혈당 측정기(BGM: Blood Glucose Monitoring)

스트립 미터

연속혈당 측정기 (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2023년 9월 출시

현장진단(POCT: Point-Of-Care Testing)

POCT진단기기

병원용 혈당기 당화혈색소 분석기 혈액전해질 분석기 혈액가스 분석기 혈액응고 분석기 면역센서 분석기

자료: 아이센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종속 기업 및 주주 구성

1. 종속 회사

아이센스는 글로벌 시장 내 판매, 마케팅,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다수의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국(i-SENS USA, Inc.), 홍콩(i-SENS Hong Kong Limited), 중국(i-SENS Jiangsu Co., Ltd.), 멕시코(i-SENS Mexico), 인도(i-SENS Biosensors India Pvt. Ltd.), 칠레(i-SENS Chile SpA), 말레이시아(i-SENS Biosensors Malaysia Sdn. Bhd.), 독일(i-SENS GmbH) 등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이와 함께, 전략적 사업 시너지를 위해 미국의 혈당측정기 제조사 AgaMatrix, Inc. 및 유럽 자회사 AgaMatrix Europe Limited, 혈액응고 진단기기 전문기업 CoaguSense, Inc.를 인수하여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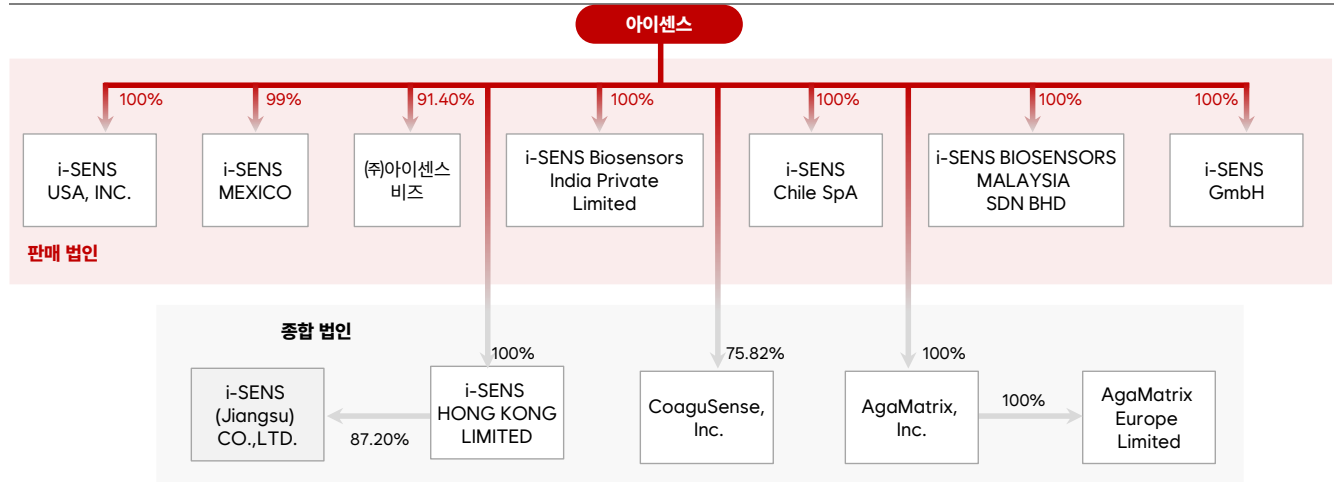
아이센스는 2023년 7월, 미국의 혈당측정기 전문 기업인 AgaMatrix, Inc.의 지분 100%를 인수하며 종속회사로 편입했다. AgaMatrix는 CVS Pharmacy(미국), Sanofi(프랑스), Alliance Healthcare(영국) 등 주요 글로벌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아이센스와 혈당측정검사지 공급 계약을 통해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본 인수는 단순한 지분 확보를 넘어, 아이센스의 글로벌 혈당측정기 ODM 사업 확대 및 미국과 유럽 유통망 강화라는 전략적 목적 하에 이뤄졌다. 실제로 AgaMatrix는 아이센스 전체 혈당측정기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공급 비중이 컸으며, 50%에 가까운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던 주요 파트너였다. 하지만 2022년 이후 AgaMatrix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주요 유럽 파트너사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수요 감소와 생산량 변동이 아이센스의 공급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이센스는 이러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의 안정성과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수에 나섰다. 인수 이후에는 중복 인력과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슬림화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 구조 혁신을 추진했다. 미국법인의 인력을 약 45명에서 20여 명으로, 유럽법인은 20여 명에서 9명 수준으로 효율화하여 사업 구조의 재정비와 수익성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 아이센스는 향후 AgaMatrix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브랜드 자산을 활용해, 북미와 유럽 시장 내 입지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에는 혈액응고 진단기기 전문기업 CoaguSense, Inc.의 지분 62.4%를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후 현재 2025년 3월 기준 75.82%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CoaguSense는 와파린 복용 환자의 혈액응고 수치를 측정하는 PT/INR 진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인수를 통해 아이센스는 전해질 및 당화혈색소 분석기에 이어 응고 진단기기까지 현장진단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되었다.

2. 주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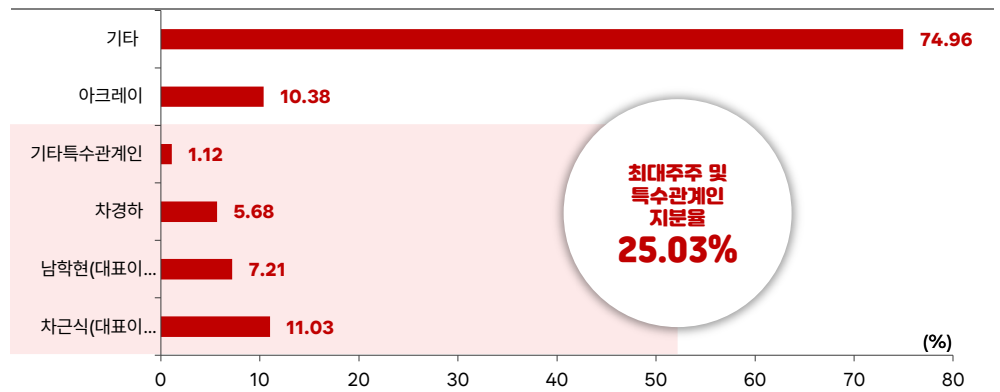
2025년 3월 말 기준 최대주주인 차근식 대표이사는 3,050,000주(11.03%)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5.03%에 달한다. 주요 특수관계자에는 가족뿐 아니라 공동대표이사인 남학현(7.21%), 차경하(5.67%) 등이 포함되어있다. 외국계 전략 투자자인 ARKRAY는 2,867,918주(10.38%)를 보유하며, 아이센스의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수익모델과 해외 혈당측정기 ODM 사업의 성장성을 반영하고 있다.

아이센스의 지배구조 현황



자료: 아이센스(2025.03말 기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아이센스의 주주 구성



자료: 아이센스(2025.03말 기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혈당측정기 산업 현황

혈당측정기 시장의 진화: BGM에서 CGM까지, 기술과 수요의 동반 성장

전 세계 혈당측정기 시장은 당뇨병 유병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기술 진보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산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혈당측정기 시장은 약 134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8.1% 성장해 23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향후 5년간 혈당측정기 산업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유망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근저에는 국제당뇨병연맹 IDF(International Diabetes Foundation)이 발표한 바와 같이 2024년 5.89억명이던 전 세계 당뇨병 인구가 2050년에는 8.53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혈당측정기 시장은 기술 유형에 따라 자가혈당측정기(BGM)와 연속혈당측정기(CGM)로 구분되며, BGM와 CGM은 모두 혈당을 측정해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를 돕는 체외진단기기지만, 작동 원리와 측정 방식, 데이터 활용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두 장치는 궁극적으로 혈액 또는 체액 내의 포도당(glucose) 농도를 측정하지만, 측정 시점, 빈도, 센서 구조 및 기술 구현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다.

자가혈당측정기(BGM, Blood Glucose Monitoring)는 당뇨병 환자 및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체외진단기로, 기본적으로 혈당측정기기(meter), 혈당스트립(strip), 란셋(lancet)으로 구성된다. 혈당측정기의 성능은 정확도와 정밀도, 채혈량, 측정시간 네 가지 요소로 평가되며, 기술력과 생산공정의 안정성은 이러한 핵심 성능 지표의 확보에 직결된다. 최근 자가혈당측정기(BGM)는 최소 혈액량($0.5\mu\text{L}$)과 5초 이내의 측정속도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술이 적용되면서 성능 향상이 이뤄졌고, 사용자의 통증 감소와 빠른 피드백 제공을 통해 측정의 일상화를 유도하고 있다.

BGM은 사용자가 손끝 등에서 채혈한 혈액 한 방울을 혈당 test strip에 떨어뜨리고, meter(혈당측정기)를 통해 포도당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BGM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여러 차례 혈당을 수동으로 측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채혈과 측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간헐적이고 수동적인 혈당 측정 방법이다. 이로 인해 해당 시장은 프린터 산업과 유사하게 소모품(혈당스트립) 중심의 반복적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장치보다 스트립 수요가 시장의 주축이 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BGM은 전기화학적 측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스트립 내의 효소 글루코스 탈수소효소 GDH(Glucose Dehydrogenase) 또는 글루코스 옥시다아제 GOx(Glucose Oxidase)가 혈액 내 포도당과 반응해 전자를 발생시키고, 이 전자가 전극을 통해 전류로 변환되어, 포도당 농도에 비례하는 전기신호로 계속되는 원리이다. BGM 방식의 대표적인 장점은 높은 측정 정확도와 CGM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전히 많은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혈당 측정 수단이라는 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수동으로 채혈해야 하는 번거로움, 채혈로 인한 통증, 그리고 실시간 혈당 추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한편, CGM은 피부 아래 피하조직에 삽입된 센서를 통해 interstitial fluid(간질액) 내 포도당 농도를 실시간으로 연속 측정하는 방식이다. CGM은 일반적으로 1~5분 간격으로 자동 측정값을 수집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리시버를 통해 혈

당의 변동 추세를 시각화한다. CGM 센서 역시 전기화학 반응 원리를 사용하지만, 혈액 대신 interstitial fluid를 기반으로 측정한다는 점이 BGM과의 주요 차이점이다. 센서의 표면에는 포도당과 반응하는 효소층과 전극이 구성되어 있어, 포도당 농도에 따라 발생하는 전류를 지속적으로 감지한다. 이 데이터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전송되며, 사용자는 현재 혈당 수준뿐 아니라 상승 또는 하락 속도, 과거의 추세, 예측 경고(저혈당 알람)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CGM 중심의 기술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CGM은 연속적인 혈당 추이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단순 수치 측정을 넘어 혈당의 변동성까지 분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수면 중 저혈당 위험 감지, 운동 중 혈당 변화 패턴 확인, 보호자 및 의료진에 의한 원격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지며 환자 안전성과 관리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9월 i-SENS의 CareSens Air가 첫 국산 CGM으로 출시되었으며, 글로벌 주요 제품 대비 경쟁력 있는 연속혈당측정기의 정확도 측정 지표인 평균절대오차 MARD(Mean Absolute Relative Deviation)가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정확도가 높은 편으로 평가되는 8.7%라는 수치(글로벌기업 7.9~10.6%)와 가격경쟁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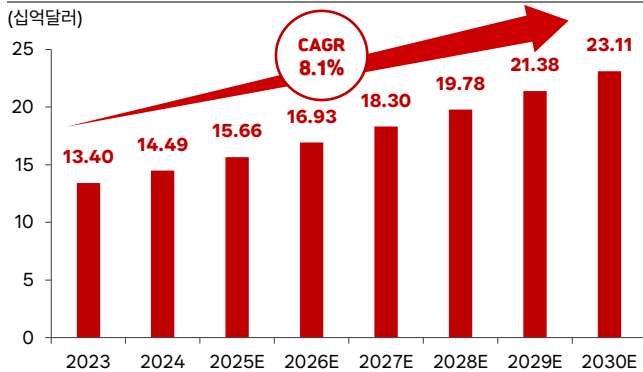
시장 경쟁 구도는 Roche(스위스), Abbott(미국), Dexcom(미국), Medtronic(미국-아일랜드), LifeScan(미국), Ascensia(스위스) 등 다국적 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고정 고객층과 유통망, 보험 연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i-SENS, ACON LAB(미국) 등 중견 전문기업들이 기술 특화와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전략을 통해 시장 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

기술 동향 측면에서는 정밀도 향상 외에도 비침습 측정 방식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광학 기반 센서, 땀/노물 기반 분석 등은 채혈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혈당 측정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최신 혈당측정기는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저장, 분석, 전송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통합은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와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고령화, 비만 인구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 조기 진단 및 예방 중심의 보건 정책 강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의료비 절감과 예방 중심 치료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혈당측정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평균 수명 연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당뇨병 외 일반 건강 관심층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통 채널 역시 오프라인 병원 및 약국 중심에서 온라인 직구, 구독형 의료기기 서비스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한편,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CGM 보험 적용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정착된 상태이며, 최근에는 2형 당뇨병 환자까지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 2형 당뇨 환자에게도 CGM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브라질, 한국 등은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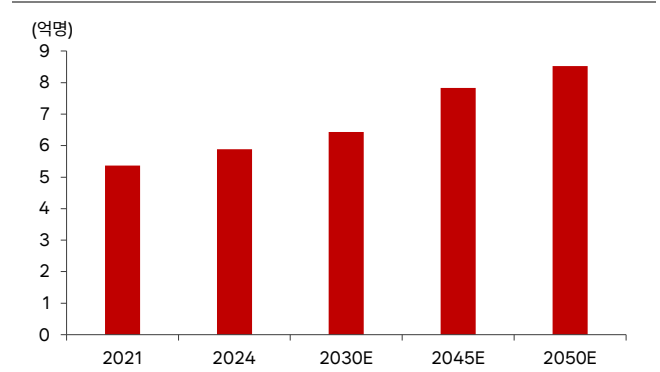
이처럼 혈당측정기 시장은 구조적으로 꾸준한 성장성이 확보된 헬스케어 산업군 중 하나로, 기술 고도화 및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CGM 중심의 제품 확산과 더불어 BGM의 가격 경쟁력, 접근성을 보완한 시장 유지 전략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글로벌 자가혈당측정기 시장 규모 추이



자료: GVR,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당뇨병 환자 추이



자료: IDF,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현장진단 POCT 산업

현장진단(POCT) 산업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진단 기술의 소형화, 자동화,

디지털화에 힘입어 응급의료,

재택진단 분야 중심으로

성장 중인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한 축으로 부상 중

현장진단 POCT(Point-of-Care Testing)는 병원 중앙검사실이 아닌 환자 근처에서 즉시 진단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검사 속도와 편의성, 그리고 의료비 절감 효과로 인해 진단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혈액 가스/전해질 분석기와 혈액응고분석기는 POCT 분야 중에서도 중환자실(ICU),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와 맞물려 수요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장진단 산업 부문으로 꼽힌다.

글로벌 혈액 가스/전해질 분석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기존의 대형 중앙검사실용 장비를 대체하는 소형 및 모듈형 장비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장비는 산소포화도, 이산화탄소 분압, 혈중 pH, 전해질 농도(Na, K, CL, MG 등)를 신속히 측정할 수 있어, 수술 중 응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장비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의료현장의 니즈에 맞춰 다항목 분석 또는 최소 검사 항목 구성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이 등장하며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고가의 검사 단가,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부족, 비전문 인력 사용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 등 해결 과제가 아직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사용 편의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네트워크 연동 기능, 일회용 카트리지 기반 감염관리 기술 등으로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중앙검사실 장비 수를 줄이고 병동 내 다수의 POCT 장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지는 추세다.

한편, 혈액응고분석기 시장도 성장 국면에 있다. PT(Prothrombin Time)/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기반의 진단 수요는 항응고제 복용 환자 증가와 고령화, 수술 전후 응고 리스크 모니터링 수요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병원에서는 수술 중 출혈 및 혈전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고, 환자 가정에서는 Warfarin(와파린, 혈액응고 억제제) 복용자들이 자가측정 용도로 해당 장비를 사용하며, POCT 기반 소형 응고 분석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환자가 직접 측정하고 데이터를 원격으로 전송하는 헬스케어 솔루션은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진료 연계를 가능하게 하며, 만성 질환자 관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장 경쟁 구도는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혈액 가스/전해질 분석기 부문에서는 Danaher(미

국)의 Radiometer, Abbott(미국)의 i-STAT, Siemens Healthineers(독일), Roche(스위스), Medica(독일), Nova Biomedical(미국)이 주요 기업으로, Radiometer는 설치 대수 기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혈액응고 분석기 분야는 Siemens, Sysmex(일본), Instrumentation Laboratory(미국), Diagnostica Stago(프랑스), Thermo Fisher Scientific(미국) 등이 시장을 주도하며, 일부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력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기술 트렌드는 소형화, 자동화, 디지털 연동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Bluetooth, NFC,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 및 분석 플랫폼이 진단기기에 통합되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 EHR(Electronic Health Record)과 연동되는 진단 솔루션은 의료진의 진료 효율성과 환자의 진단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 또한 분자진단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기술을 융합한 복합형 POCT 기기의 등장은 감염병, 응고인자 유전자 진단 등 신규 시장으로의 확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장진단 POCT 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임상적 필요성이 높은 산업으로, 향후 재택진단, 응급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진단기기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포인트

1 글로벌 CGM 시장 진입 본격화: CareSens Air 출시 및 글로벌 유통망 확보 기대감

**아이센스, CGM 신사업 본격화.
CareSens Air를 축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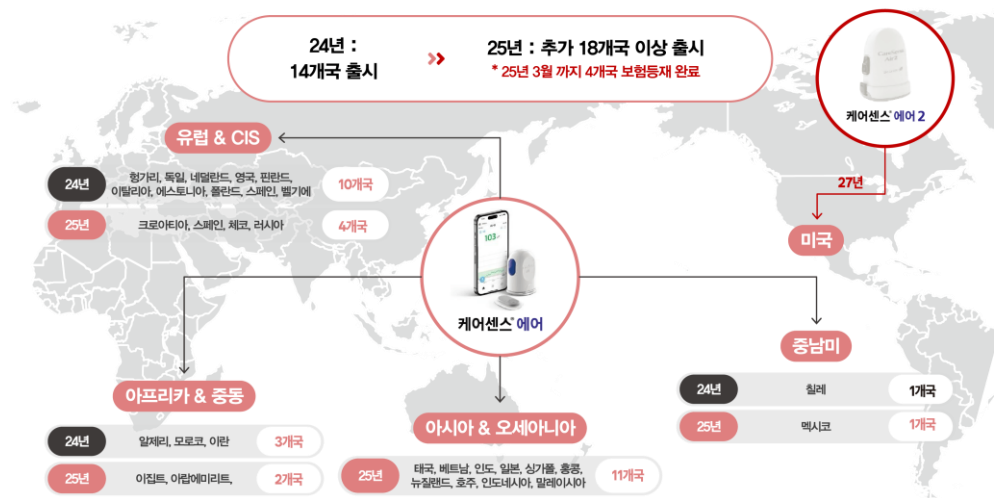
아이센스는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연속혈당측정기(CGM) 시장 진출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자사 최초의 CGM 제품인 'CareSens Air'가 있다. 해당 제품은 CGM의 핵심 성능 지표인 평균절대오차(MARD) 8.7% 수준(글로벌기업 7.9~10.6%)을 기록해, 글로벌 주요 제품인 Abbott의 FreeStyle Libre, Dexcom의 G 시리즈, Medtronic Guardian 4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정확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로부터 품목 허가를 완료하고 국내 시장에 출시된 상태이며, 2025년 하반기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 공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후속 모델인 'CareSens Air 2'는 센서 소형화, 18일 착용 가능, 신호 안정성 개선 등 기술적 고도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혈당 측정 기술의 중심이 기존의 BGM에서 CGM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아이센스의 CGM 사업 진출은 단순한 제품 다변화를 넘어 중장기 실적 성장을 견인할 핵심 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CGM 기술은 실시간 혈당 모니터링, 저혈당 사전 탐지, 측정 편의성 등에서 환자 순응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어 차세대 당뇨 관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험 급여 적용 확대와 당뇨병 환자 증가에 힘입어 CGM 수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역시 실시간 혈당 관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CareSens Air는 국내 MFDS 품목 허가를 기반으로 국내 출시를 개시한 데 이어, 유럽 CE(Conformité Européenne) 인증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쟁사 제품 대비 소형 센서 설계, 사용 편의성, 15일 지속 사용 등에서 기술적 차별점을 갖고 있어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BGM 사업을 통해 축적한 아이센스의 원가 경쟁력과 제조 역량은 CGM 사업에서도 가격 경쟁력 및 안정적인 공급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이다.

CareSens Air의 본격적인 매출 기여 시점은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2025년도에는 약 150억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중 예정된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 공개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자들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며 기업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촉매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초기에는 CGM 사업의 매출 기여 비중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매출 내에서 의미 있는 포지션을 차지하며 수익성 확대와 사업 포트폴리오의 질적 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센스 CGM 사업 계획

한국에서의 CGM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확대 추진



자료: 아이센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areSens Air & Air2와 경쟁사 제품 비교

	i-sens CareSens Air	i-sens CareSens Air 2 (예정)	경쟁사 D사 7	경쟁사 A사 3
센서 크기	35.2 x 19.2 x 5.0 mm	23.6 x 15.8 x 2.9 mm	24 x 27.3 x 4.6 mm	21(dia) x 2.9 mm
사용 기간	15일	18일	10일	14일
보정	필요한 상황에 사용자 보정	필요한 상황에 사용자 보정	선택적 보정 가능	보정 불가능
초기 안정화 시간	30분	20분	30분	1시간
데이터 전송 간격	5분에 1회	1분에 1회	5분에 1회	1분에 1회

자료: 아이센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기혈당측정기(BGM) 부문의 품질경쟁력 기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장 가능성

**BGMS 시장 내 품질&원가경쟁력
기반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
아이센스의 핵심 수익 기반**

아이센스는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대표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이다. 현재 혈당측정기 및 스트립 제품을 전 세계 114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영국, 중국, 멕시코, 칠레 등 주요 시장에 현지 법인과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꾸준히 확대 중이다. 아이센스는 오랜 ODM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축적된 기술력과 품질 신뢰도를 바탕으로, Roche, LifeScan, Abbott, Ascensia 등 4대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BGM 제품의 경쟁력은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가격(price), 채혈량, 측정시간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성능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이는 제품 자체의 기술력뿐 아니라 생산공정의 일관성과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시장 내에서 브랜드 신뢰도 및 가격 결정력과 직결된다. 아이센스는 0.5µL 소량 채혈, 5초 이내 측정이 가능한 고성능 스트립 기반의 CareSens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수요층을 아우르는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고, 가격 또한 경쟁적이며,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점을 무기로 시장 침투력을 높여가고 있다.

생산 역량 역시 글로벌 수준이다. 아이센스는 원주, 송도, 중국 등 3개의 주요 생산 거점을 운영하며, 대부분의 제조 공정을 내재화해 연간 약 25억 개 이상의 혈당스트립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 준공된 송도2공장은 스마트팩토리로 조성되어, 자동화된 생산라인과 최첨단 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CGM 센서 생산능력을 연간 200만 개까지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했다(기존 송도공장 50만 개, 신규 송도2공장 150만 개). 이를 통해 글로벌 수요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 셈이다.

제품 구조 측면에서도 아이센스는 독점 커넥터 기술을 기반으로 단일 기기에만 적용 가능한 혈당스트립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유통 파트너사 및 ODM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 유도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이는 안정적인 반복 매출 구조 형성과 함께 전방 고객과의 협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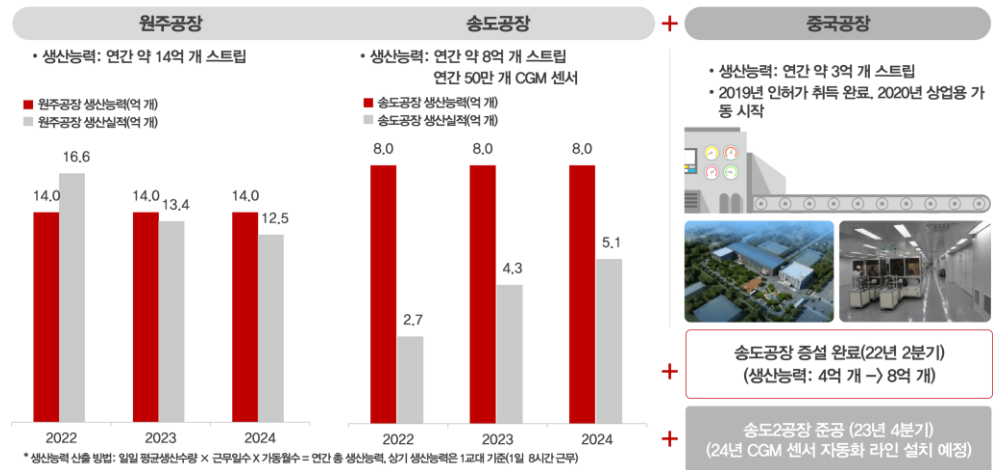
현재 BGM 시장은 글로벌 상위 4개 기업(Roche, LifeScan, Abbott, Ascensia) 이 과점하는 구조이나, 아이센스는 기술력, 품질,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CGM이 BGM을 점차 대체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BGM은 높은 정확도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CGM의 실시간 혈당 추적 기능과 병행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신흥국 시장에서는 CGM의 높은 가격이 환자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BGM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며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센스의 BGM 사업은 가장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고도화된 제조 인프라, 제품 기술력, 글로벌 유통망을 바탕으로 실적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사업군으로 평가된다.

혈당스트립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대규모 BGM 스트립 생산능력 보유(연간 25억 개 생산 시설) + CGM 센서 생산능력 50만 개

(1교대 기준)

혈당스트립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자료: 아이센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GM 라인 투자 및 확장

송도2공장에 CGM 자동화라인 - 설계 디자인과 설치 계획 중

송도공장		CGM 라인 (현재) • CGM 초기 물량 송도공장 생산 • 반 자동 라인 • 연간 Capa: 50만 개 센서 • 설치 비용: 약 50억 원
송도2공장		CGM 라인 (예정) • CGM 대규모 양산 송도2공장 가동 예정 (25년 6월) • 자동 라인 (설계 디자인 & 기기 발주 완료) • 연간 Capa.: 150만 개 센서 (1개 라인 기준)

자료: 아이센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4년 실적 리뷰

**2024년 BGM 및 POCT 사업
확장을 통해 외형 성장을
이어갔으나, 송도2공장 고정비와
자회사 AgaMatrix 실적
부진으로 수익성은 일시적으로
둔화됨**

아이센스는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2,911억원(+9.8% YoY)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세를 이어갔다. 자가혈당측정기(BGM) 부문의 안정적인 수요와 연속혈당측정기(CGM), 현장진단(POCT) 사업의 점진적 확장을 바탕으로 매출 규모가 확대되었다.

부문별로는 혈당측정기 부문 중심의 혈당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약 8.4% 증가했으며, 이 중 CGM 매출은 60억원(국내 48억원, 해외 12억원)을 기록하며 제품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의미 있는 성장 궤적을 나타냈다. POCT 사업 역시 전년 대비 약 13.5% 성장하며 외형 확대에 기여하였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미국 자회사 AgaMatrix의 실적 부진과 송도2공장 준공에 따른 고정비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영업이익은 약 27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약 19억원 적자로 전환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원가는 송도2공장 준공에 따른 고정비 약 10억원과 AgaMatrix 연결 편입에 따른 원가 약 200억원이 반영되며 전년 대비 증가했다. 판관비 또한 AgaMatrix의 고정비 전입 효과 약 90억원과 더불어, CGM 임상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약 20억원), 연구개발비 등 비용 상승(약 30억원)이 더해져 영업이익 저하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아이센스의 2024년은 CGM 사업 확대 및 글로벌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시기를 거치며 외형 성장은 지속했으나, 일시적인 비용 증가와 연결 자회사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은 다소 둔화된 한 해로 평가된다.

2025년 실적 전망

**2025년을 기점으로 CGM과
BGM 투트랙 전략을 바탕으로
실적 반등과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하며, 신사업 상업화와 생산
효율화에 힘입어 구조적 성장
전환점에 진입할 전망**

2025년은 아이센스에게 있어 실적 반등과 신사업 본격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결 기준 매출은 약 3,220억 원(+10.6% YoY), 영업이익은 약 82억원(+209% YoY)으로 실적 회복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은 CGM '케어센스 Air'의 본격적인 외형 성장 반영이다. CGM 부문은 2025년 연간 매출 약 150억원(국내 95억 원, 해외 5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반기에는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 공개와 유럽 CE 인증 기반의 보험등재 및 현지 행정 절차 마무리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실적은 매출 763억 원(+11.0% YoY), 영업이익 32억 원(+300% YoY, QoQ 흑자전환)으로 양호한 출발을 보였다. 기존 BGM 사업은 주요 파트너사인 ARKRAY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를 유지했으며, CGM 부문은 매출 31억 원(+79% YoY, 국내 19.3억 원, 해외 11.5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헝가리, 에스토니아, 영국 등 유럽 3개국에서 보험 급여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수요 확대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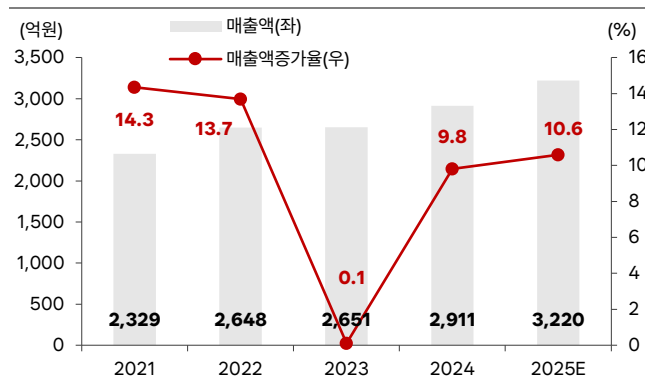
BGM 부문은 기존 국가에서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신흥국 수요 확대와 ODM 채널 확장을 통해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 효과가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측면에서는 송도2공장의 본격 가동을 통해 CGM 사업부문의 생산 Capa, 효율성, 원가 경쟁력이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BGM 미터의 베트남과 중국 생산 이전에 따른 외주비용 절감 효과와 AgaMatrix 등 연결 자회사 구조조정에 따른 고정비 감소도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다.

다만, 2025년 중 약 120억원 규모의 CGM 글로벌 확증 임상시험 비용이 집행될 예정으로, 단기적으로는 R&D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으로 CGM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기업가치 상승의 기반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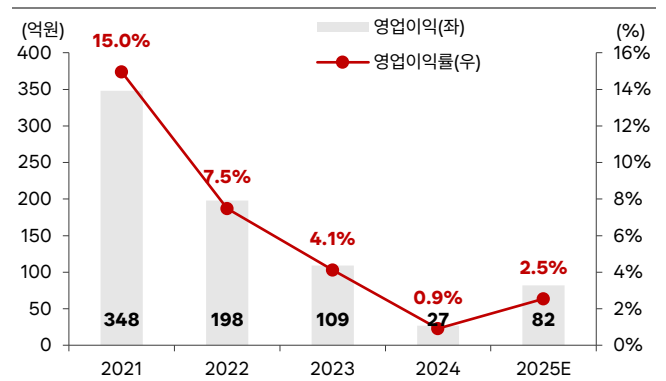
이처럼 아이센스는 2025년을 기점으로 CGM과 BGM의 투트랙 성장 전략을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 추진하는 전략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신제품 상업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생산 인프라 고도화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액 추이 (연결 기준)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연결 기준)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3	2024	2025F
매출액	2,651	2,911	3,220
증가율 (%)	0.1	9.8	10.6
BGM	2,249	2,383	2,591
CGM	9	62	154
POCT	387	439	461
기타	7	10	14
매출원가	1,591	1,776	1,917
매출원가율 (%)	60.0	61.0	59.5
영업이익	109	27	82
영업이익률 (%)	4.1	0.9	2.5
증가율 (%)	-44.8	-75.7	208.5
세전계속사업이익	61	17	64
증가율 (%)	-68.0	-73.1	286.0
당기순이익	34	-20	42
순이익률 (%)	1.3	-0.7	1.3
증가율 (%)	-78.6	적전	흑전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단기적인 수익성 저하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지만,
CGM과 BGM의 구조적 성장과
글로벌 확장을 바탕으로 실적 회복
및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중장기 투자 매력이
유요한 기업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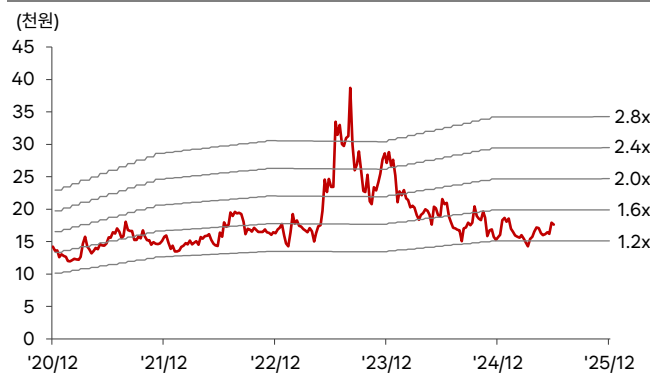
아이센스는 2025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3,220억 원, 영업이익 82억 원, 지배주주주 순이익 38억 원(EPS 139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실적 추정치를 반영한 2025년 예상 밸류에이션 지표는 PBR 1.5배, PSR 1.5배, ROE 1.2%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센스의 상대가치 지표 중 PBR과 PSR을 중심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PBR 1.5배는 예상 ROE(1.2%)가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수익률이 낮을 경우, 자산가치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센스는 BGM 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CGM 신제품 '케어센스 Air'의 글로벌 유통이 본격화될 경우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잠재적인 ROE 개선 여력을 고려할 때, 현재의 PBR 수준을 단정적으로 고평가로 보기에는 이른다.

또한 2025년 예상 PBR과 PSR이 모두 1.5배 수준으로, 이는 과거 5년간의 역사적 밴드(PBR: 0.9x~3.6x, PSR: 1.0x~4.1x)의 하단부에 위치한 수치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5년 약 15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CGM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해당 부문에 대해 별도의 멀티플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ODM 중심의 BGM 사업 역시 고부가 제품군 확대 및 신흥국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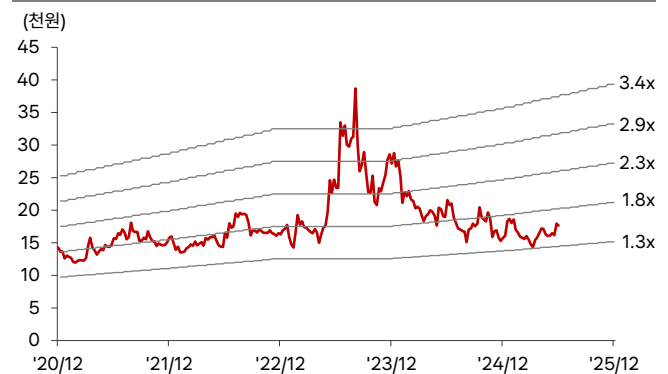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임상비용 부담과 자회사 AgaMatrix의 실적 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수익성 저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다소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CGM과 BGM 양 부문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 송도2공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 인프라 확충,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이센스는 실적 회복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동시에 기대되는 구조적 전환점에 진입한 기업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된다.

아이센스 PB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아이센스 PS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BGM 기반의 안정적 사업에
CGM을 더해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이나, 글로벌 경쟁 심화, 유통
파트너 확보 지연, 보험 등재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도
병존하며, 향후 과제 해소 여부에
따라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중장기 성장 기대 기업**

아이센스는 BGM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입지를 바탕으로 CGM 시장에 진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성장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을 투자자 관점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의 한계다. 아이센스가 진입한 CGM 시장은 Abbott, Dexcom, Medtronic 등 소수의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구조로, 이들 기업은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글로벌 유통망, 보험 등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BGM 시장에서도 Roche, Ascensia, LifeScan, Abbott 등과의 경쟁이 여전히 치열한 가운데, 이들은 고도화된 제품 라인업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아이센스가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차별화된 제품 포지셔닝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유통 파트너 확보 지연에 따른 상업화 불확실성이다. 아이센스는 당초 2024년 하반기 CGM 유통 파트너사 공개를 예고했으나, NDA(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및 계약 조건 협의 등의 이슈로 일정이 2025년 하반기로 연기되며 일부 투자자들에게 아쉬움을 안긴 바 있다. 현재 아이센스의 BGM은 ARKRAY 및 Embecta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일부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지만, CGM 부문은 별도의 파트너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 북미, 중남미,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본격적인 파트너십 체결이 가시화되지 않아 향후 유통 확대 속도 및 매출 기여도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셋째, 글로벌 주요국에서의 보험 등재 지연 가능성도 유의할 리스크다. 현재 케어센스 Air는 헝가리, 에스토니아, 영국, 한국에서는 보험 급여 적용이 완료되었으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보험 등재에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미국 시장의 경우 FDA 허가 이후 Medicare 및 민간보험 등재까지 복수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경쟁사들이 이미 광범위한 보험 적용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험 등재 지연은 향후 시장 침투율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센스는 송도2공장을 통한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원가경쟁력과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CGM과 BGM 양 축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다. 향후 글로벌 유통 파트너 공개와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 보험 등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현재의 리스크 요인은 해소 국면에 접어들 수 있으며, 아이센스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평가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2,329	2,648	2,651	2,911	3,220
증가율(%)	14.3	13.7	0.1	9.8	10.6
매출원가	1,309	1,594	1,591	1,776	1,917
매출원가율(%)	56.2	60.2	60.0	61.0	59.5
매출총이익	1,021	1,055	1,061	1,135	1,303
매출이익률(%)	43.8	39.8	40.0	39.0	40.5
판매관리비	672	857	951	1,109	1,221
판매관리율(%)	28.9	32.4	35.9	38.1	37.9
EBITDA	457	319	245	186	263
EBITDA 이익률(%)	19.6	12.0	9.2	6.4	8.2
증가율(%)	10.5	-30.3	-23.1	-24.2	41.6
영업이익	348	198	109	27	82
영업이익률(%)	15.0	7.5	4.1	0.9	2.5
증가율(%)	14.4	-43.1	-44.8	-75.7	208.5
영업외손익	-27	17	-28	7	-4
금융수익	44	47	58	74	64
금융비용	22	77	72	82	86
기타영업외손익	-48	47	-14	16	17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14	-23	-20	-17	-14
세전계속사업이익	307	192	61	17	64
증가율(%)	-12.0	-37.7	-68.0	-73.1	286.0
법인세비용	56	32	27	36	22
계속사업이익	252	159	34	-20	4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52	159	34	-20	42
당기순이익률(%)	10.8	6.0	1.3	-0.7	1.3
증가율(%)	-7.9	-36.8	-78.6	적전	흑전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255	161	37	-18	38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72	67	130	230	96
당기순이익	252	159	34	-20	42
유형자산 상각비	92	104	121	140	161
무형자산 상각비	17	16	15	19	20
외환손익	0	48	17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12	-327	-101	-98	-98
기타	123	67	44	189	-29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96	165	-638	-403	-177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5	-26	-10	163	8
유형자산의 감소	1	100	0	1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476	-220	-421	-152	-138
기타	-136	311	-207	-415	-47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83	-92	349	388	-10
차입금의 증가(감소)	506	-45	410	-62	17
사채의증가(감소)	0	0	0	50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34	-41	-48	-28	-28
기타	111	-6	-13	-22	1
기타현금흐름	7	5	-5	9	137
현금의증가(감소)	167	144	-163	223	46
기초현금	305	472	616	453	676
기말현금	472	616	453	676	722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2,077	2,172	2,178	2,756	3,014
현금성자산	472	616	453	676	722
단기투자자산	538	111	65	515	562
매출채권	496	520	614	658	727
재고자산	506	807	835	760	841
기타유동자산	65	118	210	147	162
비유동자산	2,215	2,324	2,810	3,153	2,978
유형자산	1,711	1,776	2,000	2,448	2,287
무형자산	141	150	385	325	305
투자자산	236	261	294	231	237
기타비유동자산	127	137	131	149	149
자산총계	4,292	4,496	4,988	5,909	5,992
유동부채	384	746	1,393	1,121	1,192
단기차입금	0	0	420	570	583
매입채무	99	133	175	158	175
기타유동부채	285	613	798	393	434
비유동부채	1,060	703	560	1,358	1,373
사채	0	0	0	384	384
장기차입금	942	637	457	732	731
기타비유동부채	118	66	103	242	258
부채총계	1,444	1,448	1,953	2,479	2,564
자배주주지분	2,683	2,858	2,844	3,247	3,242
자본금	69	69	138	138	138
자본잉여금	462	470	417	508	508
자본조정 등	-66	-47	-51	-52	-5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33	226	224	570	554
이익잉여금	1,985	2,139	2,116	2,082	2,093
자본총계	2,847	3,048	3,035	3,430	3,428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16.3	28.0	212.1	N/A	127.1
P/B(배)	1.5	1.6	2.8	1.3	1.5
P/S(배)	1.8	1.7	3.0	1.4	1.5
EV/EBITDA(배)	9.5	15.7	36.7	27.2	21.4
배당수익률(%)	1.0	1.1	0.3	0.7	0.6
EPS(원)	927	587	135	-65	139
BPS(원)	9,774	10,399	10,333	11,747	11,751
SPS(원)	8,485	9,639	9,637	10,546	11,660
DPS(원)	150	175	100	100	100
수익성(%)					
ROE	10.4	5.8	1.3	-0.6	1.2
ROA	6.8	3.6	0.7	-0.4	0.7
ROIC	16.0	4.8	2.4	1.2	1.7
안정성(%)					
유동비율	540.9	291.3	156.3	245.9	252.9
부채비율	50.7	47.5	64.4	72.3	74.8
순차입금비율	0.7	9.4	30.3	18.8	16.6
이자보상배율	40.7	10.6	3.7	0.4	1.0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6	0.6	0.6	0.5	0.5
매출채권회전율	5.2	5.2	4.7	4.6	4.7
재고자산회전율	5.5	4.0	3.2	3.6	4.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아이센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7.08	CareSens Air 이륙 준비 완료, 구조적 성장의 초입
2022.03.17	진행되는 투자와 연속혈당측정 시장 진입 기대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 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